

지역 소식통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교육

정읍시는 29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읍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분야 전문가인 최병철 한국창직역량개발원 대표를 초빙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주제로 교육했다.

이학수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지역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8월 28·29일 해풍고추축제 개최에 따른 불공정 상거래 행위 근절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행사장 일대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축제 방문객과 판매자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과 표준가격제 이행 불공정 상행위 근절,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집중 홍보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라며 "불가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적극 동참하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형 해상 실크로드 구현

권익현 부안군수, 제11회 중국국제 크루즈 회담 기조연설

권익현 부안군수가 제11회 중국 국제 크루즈 회담에 참석해 부안 격포항-공항 중심 한국형 칸쿤(Cancun) 비전과 중국 서해안을 연결하는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를 통한 상생 전략을 제안하는 기조 연설을 했다.

2019년부터 추진했던 부안군 크루즈 기항지 유치 노력은 코로나19로 주춤했으나 2022년 10월 부안군 크루즈 기항지 포트세일즈를 제작하고, 2023년 2월 부안군 크루즈 육성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권 군수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부안군이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모으는 중요한 턴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8일~29일, 2일간의 일정은 분주하기만 했다.

권익현 군수는 먼저, 28일 '청다오 동북아 크루즈산업 국제협력 구상'을 위한 동북아 크루즈산업 국제협력포럼에 참석해 일정을 소화하고, 이어서 세계관광도시연합회 크루즈산업분과이사회(CCIWTCF) 회원가입과 함께 신입회원 기관대표로 인사말을 하며 부안의 글로벌 관광 스팟을 소개했다.

세계관광도시연합회 크루즈 산업위원회(CCIWTCF)는 크루즈 관광도시인 베이징, 런던, 아테네, 베를린 등 31개국 125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 조직이다.

이어 29일에는 세계 크루즈 산업 발전 및 교류 협력기구인 제11회 중국 국제 크루즈 회담에 참석하여 부안의 크루즈 수용태세와 과거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던 산둥반도와 변산반도의 연대를 통한 동북아 크루즈 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부안의 크루즈 기항유치 계획은 크게 투포트(Two-Port) 전략으로 접근하



권익현 부안군수가 제11회 중국 국제 크루즈 회담에 참석해 부안 격포항-공항 중심 한국형 칸쿤(Cancun) 비전과 중국 서해안을 연결하는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를 통한 상생 전략을 제안하는 기조 연설을 했다.

고 있다. 첫 번째, 아직 기항지가 조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격포항의 텐더링 방식으로 과거 중부 횡단항로의 중심이었던 죽마동 앞바다에 모박지를 조성하고 텐더보트를 통해 국내로 입항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공항에 투자되는 1,000억원의 마리나 항만 민간자본과 연계한 영구적인 크루즈 선착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크루즈 접안 선석인 '마리나 워크'를 조성하고 전라좌수영 배후시설로

2,5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격포항과 공항구간을 서해안 최고의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마지막 연설에서 청도와 부안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Think outside the Box' 생각의 틀을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면서, 우리가 늘 보았던 지도를 뒤집어 보면 서해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글로벌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제 크루즈 관계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금주구역 5개소 지정

9월 1일부터 계도...매창·서림공원·부안생태놀이터 등

부안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5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생태놀이터,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놀이터)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울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금주구역 5개소에 금주구역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군민들에게 금주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군 소식지와 군청·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해 금주구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금주구역 단속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음주는 각종 암, 간질환, 알코올중독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며 국제암 연구소(IARC)에 따르면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로 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두경부암(구강·인두·후두 등),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은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군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음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재활프로그램 진행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용)에서 매월 1회 중독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중독재활프로그램은 알코올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단주지 강화를 위한 독서토론 프로그램과 금단증상 극복 및 음주를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생활을 찾기 위한 공예 프로그램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한 한 회원은 "그동안 술이 친구였고 술을 마시는 것만이 즐거움이었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 센터장은 "알코올 중독 관련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질화에 대해 알



게 되고, 서로 어려운 점을 공유하게 된다"며 "여러 공예 체험을 통해 소근육을 자극해 손 떨림같은 금단증상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참여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참여 회원들이 단주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선다... 전북 최초

고창군, 실태조사 연구용역 순조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지식산업연구원 수행)'이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이는 고창군 관내 노인·장애인·아

동·영유아 복지시설 97개소 1878명의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수준과 처우에 관한 첫 조사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도 고창군이 최초다.

고창군은 용역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처우 진단과 욕구 사항 파악, 우수 지자체의 사례 분석 등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마련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고창군형정재민 사회복지 과정과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회원 20여명이 모여 간담회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보건소, 코로나19 4급 전환 선별진료소 운영 변경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운영했던 정읍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8월 31일부터 운영시간을 변경한다.

정읍시 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연중 운영

했으나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31일 이후부터 평일은 기존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만 운영한다. 공휴일 및 일요일은 운영이 중단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hild abuse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112 helpline. It lists signs of child abuse and the benefits of reporting.